

韓國近代小說論研究(Ⅰ)

— 번역(안)소설론을 중심으로 —

文 聖 淑*

목 차

- | | |
|-------------------|------------------|
| I. 서 론 | 3. 전기소설의 소설론 |
| II. 근대소설론의 기점과 양상 | 4. 소설개혁론 |
| III. 번역(안)소설론 | 5. 「턴로력당」의 소설성분론 |
| 1. 번역소설론의 형성 | IV. 결 론 |
| 2. 역사소설의 소설론 | |

I. 서 론

한국 근대 소설론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을 더듬는 일은 근대소설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피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소설이 시대적 산물이고, 그 시대정신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양식이라면, 시대정신의 성격과 양상을 밝히는 일은 소설 그 자체를 분석하는 일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소설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이 어떠했느냐에도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소설론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개화기에 이룩된 문학적 성과 특히 소설과 소설론의 관계설정 문제는 시와 시론, 희곡과 희곡

* 國語教育科 教授

론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마땅히 해명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개화기의 소설과 관련된 그 동안의 연구는 개별 작가들에 대한 전기적 연구¹⁾를 비롯하여 비교 문학적 연구²⁾, 문학사회학적 연구³⁾, 문체론적 연구⁴⁾, 문학사적 연구⁵⁾, 문학비평적 연구⁶⁾ 등 여러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소설론에 대해서는 근래에 이르러 몇몇의 성과⁷⁾를 보이고 있을 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당시의 문헌자료를 구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일단 구득된 자료라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정확히 읽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 또 이 시기에 생산된

1) 대표적인 논저로

- ① 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86
- ②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82
- ③ 전광용외,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 ④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등이 있다.
- 2) ① 성현자, *신소설에 미친 만청소설의 영향*, 정음사, 1985
- ② 염건곤, *양계초와 구한말문학*, 고대박사학위 논문, 1980
- ③ 芦川哲世, *한일개화기 정치소설의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5 등
- 3) ① 이재선의, *개화기문학론*, 형설출판사, 1978
- ② 홍일식, *한국개화기의 문학사상연구*, 열화당, 1982
- ③ 김열규외,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 ④ 민병수의, *개화기의 우국문학*, 신구문화사, 1974 등
- 4) ① 권영민, *개화기소설의 문체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8
- ② 박종철, 「개화기 소설의 언어와 문체」, *개화기 문학론*, 형설출판사, 1978 등
- 5) ①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연구*, 일지사, 1975
- ②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출판부, 1983
- ③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권, 지식산업사, 1986 등
- 6) 이선영외, *한국근대문학비평사연구*, 세계, 1989
- 7) ① 권영민, *한국근대소설론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4
- ② 송현호, *한국근대소설론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8 등

특히 송현호의 연구는 서발비평과 논설형식의 비평 그리고 이론적 체계를 갖춘 본격 소설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논리 전개에 일관성 없이 편이주의에 흐른 감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그가 제시한 ① 애국계몽소설론 ② 신소설론 ③ 본격적 소설론으로의 발전단계는, ②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소설론의 내용이 ①과 중복된다. 또 ①은 그것이 성행된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도 ②의 주요 테마다. 또한 ①은 주제에 따른 분류이며, ②는 장르에 따른 분류다. 그리고 ③은 주제나 장르와는 상관이 없는 분류다.

소설론들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형식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소설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당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시비 형태가 많아 대부분의 논자들로부터 과소평가되거나 외면당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더 큰 것이었다. 대개 작품의 序·跋비평이거나 신문 잡지의 논설형식으로 된 이 시기의 소설론들은 전대소설의 서발비평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고, 내용적으로도 소설론이라고 명명하기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의 서발비평이나 논설형식이 전대소설의 그것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양자 사이에 양식상 변별적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이 서발이나 논설비평에 대한 논의를 극히 제한적으로 만든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또 조선시대의 일관된 문학이론은 '道文一致論'⁸⁾이다. 학문과 문장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러한 인식은 개화기라는 변혁기에도 그대로 지속되어, 당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훈적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소설론으로서의 무게를 크게 지니지 못했거나 외면당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본고는 한국 근대 소설론의 전개과정과 양상을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정리해 보려는 그 첫 단계로서, 개화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역사·전기소설 등 번역(안)소설론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그 이후의 소설론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아울러 본고에 이용된 자료는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생산된 모든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II. 근대소설론의 기점과 양상

근대 소설론의 기점문제를 논의하려면 우선적으로 몇 가지의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맨처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반사인 역사학 분야에서 국내 사학계는 근대의 기점을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이 밝혀지고 나면 특수사인 국문학에 있어서의 근대문학의 기점문제를 규명해야 한다.

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옥자, *조선후기문학사상사* (서울대출판부, 1990)를 참조할 것. 특히 p.145 이하

그런 다음에 소설사에서 근대소설의 기점문제, 그것과 관련된 근대 소설론의 기점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사학계에서 「한국사에 있어서의 근대의 기점」을 논한 유원동은 18세기 후반기인 영·정조시대를 근대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추이에 주목하면서 제기된 논의다. 곧 봉건적 어용상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형태의 상공업의 발달, 신분의 이동, 실학과 문예부흥의 절정에 이름, 서민적 사회기풍의 육성과 서민문학의 대두, 소설문학의 발흥 등 전통적인 봉건적 사회질서에 큰 변혁을 일으켜 근대적 성격이 분명해진 시기가 영·정조시대라는 것이다.⁹⁾ 한국사에 있어서의 근대의 기점을 이 시대로 보려는 관점은 국내 사학계에서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음 문학사에 있어서의 근대문학의 기점문제를 두고도 학자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자세히 거론할 겨를이 없지만 대체로 ① 18세기 후기설(영·정조) ② 1860년대설(자주적 응전기) ③ 1876년설(개항기) ④ 1884년설(갑신정변) ⑤ 1894년설(갑오경장, 동학혁명) ⑥ 1945년설(광복) 등이 있다. 이들 제설은 각기 나름대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문학의 형성과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한국 근대문학 형성과정론 연구사」라는 조동일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안화, 김태준, 조운제, 임화, 백철, 조연현, 박영희, 천관우, 김일근, 이우성, 정병욱, 김윤식, 김용직, 이재선, 염무웅, 김홍규 등이 제기한 근대문학의 기점 논의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갑오경장 이후의 문학이 근대문학이라는 종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1860년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¹⁰⁾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용담유사의 출현, 국문 방각본 소설의 활발한 유통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그의 「한국문학통사」에서도 1860년대를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 제2기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1860년대는 아직 뚜렷한 이름이 없다고 하면서, 개항기에 대해서는 “그 단계(1860년대 - 필자)의 성장이 다각도로 구체화되면서 외래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형태로 받아들인 것”¹¹⁾이라는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9) 한국경제사학회, 한국사시대구분론, 울유문화사, 1984. pp. 139~152 참조

10)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학사, 1983. pp. 40~43

11) Ibid., p. 43

한편 소설사에 있어서의 근대소설의 기점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선, 송민호, 김우중 등의 논의에서 대체로 위의 ⑤ 1894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근대적 의미의 소설론의 기점은 어디에 설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인가. 우리가 위에서 살핀 대로 일반사와 특수사가 역사발전 단계에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렇다면 근대문학의 기점과 근대소설의 기점문제, 그리고 근대 소설론의 기점문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근대문학의 기점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학 전반에 걸친 여러 상황을 검토한 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근대소설과 소설론의 기점도 그것대로의 실상을 따져보고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근대적 소설론이 처음 나타난 것은 갑오경장을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곧, 1895년 번역(안) 소개된 「턴로력당」이나 「유옥역전」의 서발비평에서 비로소 소설에 대한 근대적 인식으로 볼 수 있는 소설론이 단편적으로나마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직은 자료의 미비로 더 저슬러 올라갈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단계는 못되지만, 근대 소설론의 기점은 갑오경장과 동학혁명을 전후한 시기인 1890년대 중반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신소설은 번역(안) 소설이 소개된 지 10여년이 지난 1906년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양식일 뿐만 아니라, 1890년대 번역(안)소설 속의 서발비평이나 논설형식의 소설론에서는 신소설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도 번역(안)소설론과 신소설론은 그 단계를 구분해서 논의해야 될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번역소설론은 1895년부터 1910년 합방 이전까지 대략 15년동안 성행된 장르다. 다음으로 신소설론은 1906년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발표된 이후 1917년 이광수의 「무정」 출현 이전¹²⁾까지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1910년 이후에 발표된 신소설과 신소설론의 경우 그 문학사적인 의의가 현저히 감소된다. 합방 이후는 국권과 민권회복 등 애국계몽 노선이 일체 금지되고, 그에 따라 오락적·통속적 요소가 강화됨으로써 신소설도 신파소설로 변모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문학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이나 이데올로기 투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사상투쟁 또는

12)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pp. 2~37 참조

무력투쟁의 성격으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이전과 같이 수단으로서의 소설론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본격적 소설론이 대두하게 된다. 객관적 정세와 외부적 압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변모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소설 담당층이나 소설론 담당층이 신학문을 배우거나 해외유학을 마친 새로운 세력으로 형성되면서 서발비평이나 논설형식의 비평양식은 서서히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본격적 체계를 갖춘 새로운 형식의 소설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서발비평은 작품이 창작된 당대에 비평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평을 시간적으로 보아서 당대에 기록된 당대 비평과 후대에 기록된 후대비평으로 구분한다면, 이 두 비평 사이에는 중간항으로써 무수한 비평이 있을 수 있다. 작품 창작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비평과 가장 나중에 쓰여진 비평, 그리고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무수한 비평들을 두고 언제 생산된 비평이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선불러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당대비평은 작품이 생산된 후 최초로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발비평의 주체가 당대인으로서, 작자(저자)와 어떠한 형태로든 인연을 맺고 있는 스승, 선배, 동료들이라는 점에서 작품에 대한 미화 찬양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미화 찬양으로 덧씌워진 표피를 벗겨내고 보면 그 속에 작품의 의미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당대인의 정신적 궤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서발비평의 형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해당 문헌들의 성립연대를 고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른 시기에 산출된 것일수록 서발비평의 필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원래 서나 발의 형식으로 쓰여진 글들은 필자 자신이 집필한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개는 필자의 주변 인물들이 집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비평 내용이 곧 대상이 된 작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서는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되 실마리를 풀어내듯 차례대로 풀어쓴 글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문을 읽기 전에 그 본문을 읽어나가기 위한 길잡이 또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거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필자

에 대한 소개, 창작동기 또는 독자에 대한 기대지평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서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발은 본문의 뒤에 덧붙인 것으로써 대개는 본문 내용을 읽고난 후의 느낌을 적거나, 최종적인 마무리로써 일반론 또는 앞으로의 전망 등을 피력하게 된다. 이러한 서발비평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서문이나 후기형식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써, 본고에서 논의되는 서발비평의 개념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Ⅲ. 번역(안)소설론

1. 번역(안)소설론의 형성

개화기 서사문학에 대한 장르 규정의 문제는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아직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 이에 대한 집적된 성과¹³⁾가 이룩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김준오는 개화기 소설을 ① 토론소설 ② 역사·전기소설 ③ 정치소설 ④ 신소설의 네 가지 장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③은 ①, ②와 ④에 두루 나타나는 작품들이므로 본고에서는 일단 ③을 제외한 ①, ②, ④의 세 장르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이 세 장르는 이재선에 의해서 ① 회화주의적 서사체 ② 경험적 서사체 ③ 허구적 서사체¹⁴⁾로 분류된 바 있다. 개화기 서사문학을 세 유형으로 분류할 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② 경험적 서사체 곧, 역사·전기소설이다. 그런데 개화기 소설을 다룬 많은 논자들은 허구적 서사체인 신소설이나 「금수회의록」과 같은 회화주의적 서사체 등에는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면서도, 역사·전기소설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룩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적 서사체인 역사·전기소설의 서사문학적 성격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일차적인 이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소설의 경우, 그것을 역사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소설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전통적

13) 김준오, 한국현대장르비평론, 문학과지성사, 1990, pp. 115~139 참조

14) 이재선, 「개화기 서사문학의 세 유형」, 우촌 강복수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6

傳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전기소설도 그것이 전기인지 전기체 소설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것은 역사·전기소설이 지니는 이중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뿐만 아니라 역사·전기소설 대부분이 서구의 역사나 전기를 소재로 한 것을 번역(안)한 내용으로 삼고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 소설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논의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또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서구적인 현대소설 개념으로 역사·전기소설을 파악하여 좁은 의미의 순수문학 또는 순수소설로 간주할 수 없었던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개화기의 역사·전기소설은 당시 지식인 선각자들이 뚜렷한 판단과 주견을 가지고 번역 소개한 것들이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화기라는 변혁기에 이룩된 역사·전기소설의 원초적 형태라는 점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역사·전기소설은 개화기라는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하고 소설의 한 형태로 간주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역사·전기소설은 다시 역사소설과 전기소설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역사소설의 경우 「단국역사」와 같이 서양의 역사를 소개하려는 의도로 번역된 것들도 더러 있지만,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된다. 첫째, 「미국독립사」, 「서사전국지」 등 서양 각국의 독립사 내지는 건국사류이며 둘째, 「중동전기」, 「파란말년전사」 등 전쟁사류 셋째, 「월남망국사」 같은 흥망을 다룬 것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서양 각국의 건국사, 전쟁사, 망국사들에 투영된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외세 침략에 직면한 당대 민중들을 각성시키려는 의도로 번역된 것이다.

또한 전기소설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나파륜전」, 「비스막전」, 「피득대제전」 등 서양의 국가적 영웅들의 전기와 둘째, 「라란부인전」, 「애국부인전」, 「이태리전국 삼결전」 등 민간 영웅들에 대한 번역전기 셋째, 「울지문덕」, 「강감찬전」, 「이순신전」, 「최도통전」, 「천개소문전」 등 민족적 영웅들에 대한 창작 전기소설이 그것이다. 이들 역사·전기소설은 주로 현재,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등 당대의 민족적 선각자이며 사상가들에 의해서 번역되거나 창작된 것들로써, 그들이 의도한 역사적 상상력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역사·전기소설은 국권과 민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번역되거나 창작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개화기의 애국계몽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국권회복운동과 민권회복운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 쓰는 용어다.

그런데 인용하는 개화기의 애국계몽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규정짓고 있다. 곧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하여 국권을 박탈당한 전후 개화자강파가 중심이 되어 완전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전개한 1905년~1910년 사이에 민력계발과 민족독립역량 양성운동을 총칭하는 개념”¹⁵⁾으로 설명한다. 그는 또 애국계몽운동의 내용을 문화운동뿐만 아니라 ① 신교육 구국운동 ② 언론계몽운동 ③ 민족산업진흥운동(실업구국운동) ④ 국채보상운동 ⑤ 신문화·신문학운동 ⑥ 국학운동 ⑦ 민족종교운동 ⑧ 해외독립군기지 창건운동¹⁶⁾ 등이 포함되는 사회운동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은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의 힘을 양성하기 위해서 당시 지배층이나 식자층뿐만 아니라 모든 민중들을 상대로 ‘民智를 啓發하고 民力を 양성’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당시의 ‘대한자강회’(1906. 3.), ‘신민회’(1907. 4.), ‘대한협회’(1907. 11.) 등 합법적 단체로 위장한 비밀결사 단체들이 주도한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애국계몽운동만을 지칭하는 하나의 역사적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고 국권과 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세에 의존해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자강을 실현하여 자력으로 목적을 달성하여야만 하며, 자강은 자력으로 민력을 양성해야만 한다는 신념에서 활동한 기간만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애국계몽운동은 1905년 이전에도 있었고, 1910년 이후에는 보다 더 강력한 무장투쟁운동으로 발전된다. 국력이 쇠퇴하고 주변 열강들의 침략의 축수가 뻗치면서, 자의에 의한 문호개방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개방되던 1860년대부터 뜻있는 지식인 선각자들에 의해 애국계몽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1905년~1910년 사이에 전국 규모의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⑤ 신문화·신문학운동만 하더라도 역사·전기소설, 신소설, 신체서,

15) 인용하, 한국근대사회사상사연구, 일지사, 1987. p. 352

16) Ibid., p. 352

우국가사, 창가, 우국한시, 의병창의가 등 개화기 문학의 전 장르에 걸쳐 애국계몽사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 문학작품들이 그의 지적대로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만 발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보아도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1890년대의 역사·전기소설에서부터 1910년 합방때까지 지속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학에 있어서의 애국계몽사상이다.

그렇다고 하여 개화기에 이룩된 문학적 성과를 포괄하여 그 사상적 원류를 애국계몽사상으로만 이해하려는 시각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며, 또 본고의 목표도 아니다. 개화기 소설론에 있어서 애국계몽소설론은 사상사적인 애국계몽운동의 단계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애국계몽사상의 형성과 그것이 운동적 성격을 띠게 되는 사상적 원류는 대개 ① 실학사상 ② 개화사상 ③ 사회진화론 ④ 서구계몽사상의 영향¹⁷⁾ 등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①, ②는 민족 자체내의 내부적 성장에 의해 자생적으로 이룩된 것이지만 ③, ④의 경우는 서구로부터 직수입되거나 일본, 중국을 매개로 유입된 것들이다. 개화기의 여러 논설이나 저작중에 강유위, 양계초 등 중국의 애국계몽사상가들에 대한 소개나 그들의 저술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화기의 애국계몽사상은 위의 ①~④와 직·간접으로 연결되면서 그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2. 역사소설의 소설론

1897년 「태서신사」가 최초로 번역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08년까지 약 10여년간에 걸쳐 생산된 역사소설은 20여편이 넘는다. 이 역사소설은 다음 절에서 논의될 전기소설과는 달리 창작소설이 거의 없이 대부분 번역(안)된 소설들이다. 또 1890년대 중반부터 10여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번역 소개된 사실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개화기에 이르러 국가적 민족적 위기가 점차 고조되면서 선각자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정척사사상과 개화사상은 서로 대척적인 위치에서 대립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각각 나름대로 사회의

17) Ibid., pp. 358~359

지지세력을 확보하면서 국권회복과 민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의 민족운동을 전개한 사상적 유파다. 특히 이 국권과 민권회복운동은 사실상 국권을 침탈당한 1905년 이후부터는 사회 각분야에서 더욱 강경한 성격으로 변모되어 갔다. 이와 함께 역사소설도 점차 그 시대적 역사적 기능과 역할이 감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전기소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면서 1910년 합방 이후 역사소설 번역은 결정적으로 쇠퇴한다. 그것은 합방이라는 외부적 정치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의 재판적 정세가 애국계몽운동 또는 구국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고 더구나 국권이나 민권이란 용어 사용조차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개화기 역사소설에 대한 서발비평이나 논설형식의 소설론에서 드러나는 사상적 흐름을 대강 정리하면 ① 국권사상 ② 민권사상 ③ 당쟁의 폐해 경계 ④ 외세의존 경계 ⑤ 구국영웅의 출현 기대 ⑥ 새로운 혁신사상의 수용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된다. 이러한 주요 주제들은 대개 위정척사파의 자주자강사상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들으로써, 신소설에서 드러나는 개화사상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①~④는 역사소설의 소설론에서 거의 빠짐없이 다루어지는 항목들이며, ⑤의 경우는 역사소설 뿐만 아니라 다음 절에서 다룰 전기소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주제다.

그러면 개화기 역사소설에 대한 서발비평이나 논설형식의 소설론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국권사상과 민권사상을 다룬 소설론은 「泰西新史」(1897), 「中東戰記」(1899), 「美國獨立史」(1899), 「波蘭末年戰史」(1899), 「埃及近世史」(1905), 「法國革新史」(1905), 「越南亡國史」(1907), 「瑞士建國誌」(1907) 등의 서발비평이나 논설형식의 소설론에 대부분 나타난다. 이들 역사소설의 소설론은 소설 자체에 대한 논의로서의 소설론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상상력에 의해서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타국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와 통합해서 이해하려 했던 당대인들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중동전기」는 당시 조선을 사이에 두고 1894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계속된 청일전쟁의 전말을 서술한 것이다. 당시는 조선문제를 둘러싼 청·일간의 세력다툼 양상이 고조되고 있었다. 결국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이를 외세를 빌어 진압하는 과정에서 벗어난 알력 때문에 청일전쟁이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이로 인해 조선이 본격적으로 주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동전기」 '서'에 '撰譯而實於我韓關係亦大'¹⁸⁾라는 구절에서도 그 번역 의도가 잘 드러나 있지만, 황성신문의 논설에서도 '螳螂이 抱蟬에 黃雀이 在後라하니 日本을 謂함'¹⁹⁾이라는 문맥에서 당시 조선이 처한 형상을 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마땅히 백성을 잘 다스리고 국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政府의 職分은 一毫도 守하지 못하고 人民더러만 疾甚'²⁰⁾함으로써 국권은 물론 민권마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동기가 당시 친일파와 친청파의 당리당략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위정자들의 국권수호 의지가 투철하지 못하고 권력투쟁으로 인한 당파적 대립 때문에 외세를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국권과 민권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파란말년전사」 '서'에서 폴란드는 본래 영토가 넓고 인구도 많은 데다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도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등 주변 열강들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폴란드의 멸망이 주변 열강들 탓만이 아니라 폴란드 자국민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는 폴란드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폴란드 국론분열은 외국의 힘을 끌어들이 자기세력의 권력을 쟁취하려 한 귀족들의 행태 때문이며, 결국 외국의 간섭을 자초하고 급기야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파란말년전사」에 등장하는 인명이나 국명을 제외하고는, 열강의 간섭에 시달리는 개화기의 실상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讀法國革新史'(황성신문, 1905. 8. 24~26)에서는 소설의 내용 소개와 더불어 정치 혁신의 모범을 영국 혁명에서 찾고자 하는 논설형식의 소설론이다. 영국도 18세기 중엽 이전에는 백성들이 위정자들의 불법과 압제의 학정에 참혹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천부의 자유와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만민평등사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혁명이 성공한 것은 특출한 계몽사상가들이 속속 배출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다. 곧 몽테스큐(1689~1755), 볼테르(1694~1778),

18) 「중동전기」, 역사·전기소설 3, 아세아문화사, 1979, p. 1

19) 황성신문, 논설 '余近日에 中東戰記를 閱覽', 1898. 12. 24

20) Ibid., 1898. 12. 24

디드로(1713~1784), 루소(1712~1778) 등 사상가들이 혁신적인 계몽사상으로 백성들을 각성하게 했고, 그것은 결국 '全國 人民의 屍山血海'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법국의 백성들은 '人類天賦의 自由權限과 獨立思想의 國家觀念을 先爲教授訓導'²¹⁾하게 되었고, 이러한 법국의 혁신사상이야말로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改革藥石'이라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세계식민사」나 「월남망국사」의 서발이나 논설비평에서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경계하는 내용도 소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소설의 소설론은 대부분 국권과 민권을 수호하거나 현실개혁의 준거를 서양 각국의 역사적 사실속에서 마련하고자 했다. 비록 우리 역사가 아닌 서구의 그것을 취한 것이라 할 지라도 역사적 우의법에 입각하여 반식민주의적 자주독립사상이나 민족주의적 의식을 민중들에게 가르쳐 계몽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민족사 자체에 대한 진지한 탐구나 그 축적된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서양문물이 대량으로 유입 소개되는 과정에서 손쉽게 택할 수 있었던 자료가 서구의 역사였고 거기에서 현실타개의 준거를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설론에 목적의식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소설의 효용론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을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그 민중을 바탕으로 국권과 민권의 수호 내지는 부패한 정치 사회제도의 개혁을 이룩하려 했던 투철한 시대정신은 인정해야 될 것이다.

3. 전기소설의 소설론

개화기의 역사소설이 1897년부터 1908년까지 10여년간에 걸쳐 번역 소개된 반면, 전기소설은 1905년 을사조약부터 1910년 합방 이전까지 짧은 기간내에 집중적으로 번역되었거나, 그 번역경험을 토대로 민족적 영웅에 대한 전기소설로 창작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1905년 국권을 상실한 이후 군대의 해산, 차관정치의 실시 등 감당하기 어려운 민족의 절망적 상황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애국지사들은 망국의 비애와 울분을 민족 앞에 순국으로 실천했

21) 황성신문, 1905. 8. 26

고, 무장한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의병항쟁을 일으켜 국권회복의 기치를 높이 올렸던 시기에 전기소설이 번역되거나 창작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어떤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이후 우리 소설사에서 가장 주체적인 민족문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기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기소설의 서발이나 논설 형식의 비평에 보이는 소설론도 그것을 번역하거나 창작한 의도에 대체로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 절에서 논의된 역사소설의 소설론에는 거의 언급되지 못했던 소설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한 전환으로 지적될 수 있다.

비스마르크나 나폴레옹, 피터 대제, 가피일드 미국 대통령 등 서구의 국가적 영웅들에 대한 번역 전기에서는 주로 국가의 혼란기에 부국강병책을 통해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시킨 영웅들에 대한 전기들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국가를 구했던 구국영웅이라기 보다는, 근대적인 정책을 써서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고 근대적인 굳건한 국가체제로 정비한 국가 지도자들에 관한 전기라고 할 수 있다. 열강의 침략으로 국권이 위기에 놓인 당시 상황에서 강력한 통치자의 등장을 열망했던 의식의 소산인 것이다. 한편 이들 통치자들에 의해 기반을 다진 국가들이 대부분 제국주의와 팽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외세의 침략을 막아 내고, 민권을 신장시켜 근대적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에서 본다면 이들 전기소설이 당대 민중들에게 끼친 영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국권과 민권을 수호하고 근대적 국가로 발전시킨 모델로써 「라란부인전」, 「애국부인전」, 「이태리전국삼걸전」 등이 있다. '近世第一女中英雄'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라란부인전」은 19세기 자유를 숭상하던 프랑스의 영웅 라란부인의 전기를 소설화한 것이다. 국문으로 된 이 소설의 서문에 '19세기 구주 대륙에 일절 인물이 라란부인을 어미 슬지 아닐이 없'²²⁾을 만큼 그녀는 '자유, 문명, 혁명'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10회의 회장체로 된 「애국부인전」은 1338년부터 시작된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잔느 다르크의 구국항쟁 일대기를 서술한 전기소설이다. 영국과의 수습

년에 걸친 전쟁에 패전하여 도탄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17세 소녀의 몸으로 출전한 잔느 다르크는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오를레앙 성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파리를 탈환하려다가 포로로 잡혀 화형당한다는 이야기다. '능히 법국을 회복하고 이름이 천추 역사에 혁혁히 빛날 여장부'²³⁾로 칭송된 「애국부인전」은 「라란부인전」과 더불어 외세에 저항하는 영웅적 일생을 우리도 본받자는 취지에서 번역된 것이다. 이미 기울어진 국권을 회복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국가적 영웅뿐만 아니라 평범한 인물이나 여성들도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태리전국삼걸전」은 애국계몽사상가인 신채호가 역술한 것이다. 장지연은 그 서문에서 '愛國者以是愛國心者國之光也生命之糧也學問之源也'²⁴⁾라고 밝히고 있다. 애국자란 구국의 사상을 지닌 인물로서 국가의 흥륭번창과 문명 그리고 부강 여부가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논설 형식으로 된 「讀伊太利建國三傑傳」은 10회에 걸쳐 황성신문에 연재되었다. 소설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면서 온 나라 애국자들이 이 「이태리전국삼걸전」을 읽기를 권하고 있다.

吾寐而歎之하노니 我國民이 其有知愛國者乎아 雖其地位之不及이 相萬하고 才略之不及이 相萬이라도 萬其策하며 萬其業이면 上則可以爲三傑之一이오 下則可爲三傑之一之一體니²⁵⁾

그 지위가 삼걸에 훨씬 못 미치고 지략이 훨씬 못 미칠지라도 책략과 업적을 많이 쌓으면 삼걸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국 영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노력하면 삼걸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위기를 극복하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신채호가 한국의 역사에서 소재를 취한 창작 전기소설로 「을지문덕」, 「이순신전」, 「최도통전」과 박은식의 창작 전기소설인 「천개소문전」은 민족적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을지문덕」에는 변영만, 이기찬, 안창호의 서문과 작자 자신의 것 등 네 개의 서문이 붙어 있다. 이들 서문은

23) Ibid., p. 342

24) 역사·전기소설 5. Ibid., p. 407

25) 황성신문, 1906. 12. 18

공통적으로 민족 최대의 영웅으로 간주되는 을지문덕의 독립적 기상과 전투적 기상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하여 그와 같은 인물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는 내용이다. 작자 자신도 '과거의 영웅을 올바로 기록하여 후에 이같은 영웅이 다시 출현하기를 기원'²⁶⁾하면서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한 국민의 용감하고 비겁함, 우수하고 못남은 그 나라의 한 두 선구적인 영웅의 고부·격려에 달려 있다.'는 언급에서 그 창작 의도와 목적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순신의 일대기나 최영의 일대기 그리고 천개소문의 일대기를 통해서도 우리 역사상의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민족적 영웅들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소설개혁론

번역(안)소설의 서발이나 논설형식의 소설론에서는 당시에 성행하던 한글본 고대소설과 국문으로 번역된 중국소설들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 그것은 그러한 소설들이 독자들의 구미에만 영합하는 상업주의적 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나침반'으로써 민족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존의 국문소설을 비판하고 소설을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는 주요한 소설론은 박은식의 「서사건국지」 '서', 신채호의 「近今國文小說著者の注意」, 「근래 나는 책을 평론 - 월남망국사」, 논설 「연극지계 이인직」, 신채호의 「소설가의 추세」 등이 있다.

박은식의 「서사건국지」 '서'는 정치소설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서문형식의 소설론이다. 그에 의하면 소설은 한 국가의 인심풍속과 정치사상을 파악하는 첩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좋은 소설이 없고 기껏해야 「구운몽」, 「사씨남정기」 등 몇 종에 불과하며, 그밖에 중국에서 들어온 「서상기」, 「옥린몽」, 「전등신화」, 「수호전」과 국문소설로 「속대성전」, 「소학사전」, 「속영남자전」 등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 소설들은 대개 '荒誕無稽하고 遙靡不經하고 適足以人心을 蕩하고 風俗을 壞하고야 政教와 世道에 關하고야 爲害不淺'²⁷⁾ 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력이 약해져서 국권을 상실하고

26) 역사·전기소설 7, 아세아문화사, 1979, p. 26

27) 역사·전기소설 6, 아세아문화사, 1979, p. 197

타인의 노예가 된 원인이 국민의 애국사상이 천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서사전국지」를 번역 소개하는 일도 '國性を培養하고 民智를 開導'²⁸⁾ 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위에 열거된 고대 소설들은 모두 서고에 보관해 버리고, 「서사전국지」와 같은 역사·전기소설들을 많이 보급함으로써 자주독립사상을 더욱 공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국문소설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주자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소설부정론 또는 소설배격론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곧 소설이 '世道를 萎靡'케 하거나, 음탕하고 허황한 내용이 많고, 비속한 말로 되어 있어서 민중의 각성을 촉구하거나 전 사회를 고무하여 국기를 튼튼히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생각은 논설형식으로 된 신채호의 「근금 국문소설 저자의 주의」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萎靡淫蕩의 소설이 多하면 그 國民도 此의 感化를 受할지며 俠情慷慨의 소설이 多하면 그 國民이 此 感化를 受할지니 四儒의 云한 바 「小説은 國民의 魂」이라함이 誠然하다. 한국에 전래하는 소설이 大半 桑園薄土의 淫談과 崇佛乞福의 怪話라. 此亦 人心風俗을 敗壞케 하는 一端이니, 각종 신소설을 著出하여 此를 一掃함이 亦汲汲하다.²⁹⁾

나약하고 음탕한 소설이나 호협하고 강개한 소설들은 그것대로 국민의 감화를 받는 것이니, 소설은 그야말로 '국민의 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심 풍속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소설을 많이 저술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서 '신소설'은 이인직, 이해조 등에 의해서 창작된 소설사적 개념으로써의 신소설이 아니라, '세도를 위미'케 하는 낡은 내용을 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로 꾸민 소설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한편 당시 사회 일각에서는 구소설의 매매를 금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신채호는 생각을 달리한다.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신소설이 많이 생산되기만 하면 구소설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므로, 굳이 민심을 거역하며 강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소설의 도래는 역사적으

28) Ibid., p. 197

29) 대한매일신보, 1908. 7. 8

로 필연적인 것이며, 따라서 구소설의 퇴조도 시대적 당위성을 갖는다는 인식이다.

「근래 나는 책을 평론 - 월남망국사」는 17회에 걸쳐 연재된 것으로써, 「월남망국사」를 읽고, 저자가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형식의 소설론이다.

그 책은 신론이라 하나 참일음을 하려면 신소설이라 하겠사니 소설이라 하는 거슨 참된 사실을 욱 가지고 하대 그 사정을 참 잇는대로 기록지 아니하고 쓰는 사람의 마음대로 기록하니 이와 갓히 이 책에 거짓말이 참말보다 더 만흔 거슬 이후에 낫낫히 증거하겠사나³⁰⁾

위의 인용에서 드러나는 '신소설'의 개념도 앞에서 지적한 대로 역사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소설이라는 단순한 의미라야 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논자가 소설을 허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 허구는 작자의 상상력의 소산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거짓말이 참말보다 더 만흔 것'이라는 문맥에서는 허구와 거짓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논자는 소설이 허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월남망국사」가 역사소설이므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이다. 역사소설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작자의 상상력을 통해서 재구성 된다는 인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역사·전기소설을 '신소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지적되었다. 그러나 그 개념이 이인직, 이해조 등에 의해 창작된 신소설과는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논설형식인 「연극지계 이인직」이 있다. 이 글은 이인직이 당대 제일의 소설가로 자부하며 신소설을 발표하고 있었지만, 국가를 위하여 유익한 사상을 작품 속에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나빈손 표류기」나 「약안정덕구국전」 같은 소설을 발표하여 국민의 모험심을 고무하거나 애국심을 조장할 수 있는데도 '鬼의 聲과 如한 小説을 著하여 社會상의 功德만 파괴하며 독자제군을 媚倒하고 冊價 幾百圓으로 其下著費만 充하였도다.'³¹⁾라고 하면서 도덕성 파괴는 물론 독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공격한다.

30) 경향신문, 1908. 4. 10

31) 대한매일신보, 1908. 11. 9

역사·전기소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시기에 그것과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귀의 성」과 같은 소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국성을 배양하고 민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대에 성행하던 구소설은 물론 「귀의 성」과 같은 신소설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결국 소설 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해지는 것이다. 소설을 '국민의 나침반'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채호의 「소설가의 추세」는 그 소설 개혁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소설이 국민을 강한 데로 導하면 국민이 강하며, 소설이 국민을 약한 데로 도하면 국민이 약하며, 正한 데로 도하면 正하며 邪한 데로 도하면 사하나니 소설가된 자 마땅히 自慚할 바이어늘 근일 소설가들은 誹淫을 主旨를 삼으니 이 사회가 장차 어찌 되리오.³²⁾

소설이 국민을 강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야 된다는 효용론적 측면을 명백하게 강조하면서, 당대 가치관의 당위성을 옹계 반영할 수 있는 역사·전기소설을 널리 읽히자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이다.

5. 「턴로력당」의 소설성분론

개화기 번역소설의 모습은 1895년 「턴로력당」과 「유옥역전」 등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번역소설론의 경우도 선교사 게일(James S. Gale)이 선교를 목적으로 번역한 「턴로력당」의 서문에서 비롯된다. 이 서문에서는 천로역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원저자(John Bunyan)에 대한 소개와 그 창작 동기를 설명한 다음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신도들에게 선교를 목적으로 저술하게 된 경위를 기술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아울러 에펠레이션(Appellation)의 내용에 상응하는 다음과 같은 문맥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의 일흠과 사 일흠은 촘으로 잇는거시 아니라 명목만 빌어다가 일흠을 지엿스디 선한 사람의 일흠은 선하게 지코 악한 사람의 일흠은 악하게 지코

32) 대한매일신보, 1909. 12. 2

조흔 싸일흠은 조케 지코 흥흔 싸일흠은 흥하게 지엿스니 이 칙 보논 벗님네는
일흠을 보고 뜻술 생각스옵소서³³⁾

르네 쉐렉과 오스틴 워렌은 「문학의 이론」에서 '성격 창조'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명명'이라고 한 바 있다. 여기서 명명이란 곧 Appellation 또는 Affiliation을 의미한다. 그것은 '양자로 입적하기', '호적에 올리기', 또는 '작명법'이란 뜻을 지닌 용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 인물의 생생한 개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행동 양식이나 줄거리 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인물에 대한 명칭 부여 그 자체가, 소설 전체를 통해서 인물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이나 의도를 드러내는 데 적절한 방식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에펠레이션이 작품 속에서의 효과는, 다른 경우에서보다 도덕적·윤리적 관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작품에서 크게 나타난다. 곧 선인과 악인이 전형적 대립구조로 구성된 작품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도덕적·윤리적 관심이 다른 무엇보다 우세한 상황이었다는 사실 말고도 「턴로력명」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한 공리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선악의 대립구조로 배치한 인물의 이름들은 당시 독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끄는 데 크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턴로력명」에 등장하는 인명이나 지명은 인물의 성격 유형이나 그 존재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다. 서문 다음에 '사름의 일흠이라'와 '싸일흠이라'라는 두 개의 제목 밑에 120여개의 인명과 지명이 열거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개만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인명 : 우몽(愚蒙 - 괘호숙의 한자는 필자), 휘타(懈惰), 자시(自恃), 위선(僞善), 탕부(蕩婦), 능언(能言), 밍심(盲心), 절망(絶望), 빈도(背道), 허망(虛妄) 등

지명 : 장망성(將亡城), 슈행촌(修行村), 허영(虛榮), 간난산(艱難山), 혼미향(昏迷鄉), 교언향(巧言鄉), 호리촌(毫釐村), 괴신향(棄信鄉), 스하(死河) 등³⁴⁾

위에 열거된 인명과 지명들은, 그때까지 서양의 소설을 접해보지 못했던

33) 역사·전기소설 1, 아세아문화사, 1979, pp. 12~13

34) Ibid., pp. 15~28 참조

독자들에게 명칭이 가져다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역할 기능이나 줄거리 구도를 파악하는 안내자 구실도 수행했던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명이나 지명은 대부분 한자어의 의미에서 생겨난 경우로 이름만 보아도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에펠레이션에 대한 인식이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신체적·기질적 특징을 알레고리한 소설들에서 자주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증거는 분명해진다. 「금수회의록」의 서언 다음에 나오는 '개회취지'에서 ① 사람된 자의 책임을 의논하여 분명히 할 일, ② 사람의 행위를 들어서 옳고 그름을 의논할 일, ③ 지금 세상 사람중에 인류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조사할 일이라는 안전을 내걸고 그것을 토론할 인물들이 등장한다. 가마귀(反哺之孝), 여우(狐假虎威), 개구리(井蛙語海), 벌(口蜜腹劍), 게(無腸公子), 파리(螻蛄之極), 호랑이(苛政猛於虎), 원앙(雙去雙來) 등 동물들은 인간과 1:1의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인물들은 대부분 인간에 비해서 신체적 기형이나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러한 기형이나 결함이 오히려 겉으로 온전하게 보이는 인간들보다 도덕성을 더 크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들은 위의 토의안전 중에서 한 가지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로 풍자되고 있다.

동물에 알레고리된 등장인물의 전통은 전대소설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가 전체 소설이나 의인체 설화소설에 특히 자주 등장하는데 「별주부전」, 「장끼전」, 「서동지전」, 「섬동지전」, 「서대주전」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개화기 소설 중에서 「소경과 앓음방이 문답」이나 「거부오해」 등에서도 신체적 결함이나 최하층의 인물을 등장시켜, 정상인들의 도덕적·윤리적 기형과 결함을 폭로 풍자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VI. 결 론

본고는 한국 근대 소설론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화기 번역(안) 소설과 관련되는 소설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킨

것이다. 논리적 체계를 갖춘 소설론이라기 보다는 작품의 서발비평과 신문 잡지에 논설형식으로 발표된 소설론들이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 단계의 소설론을 예비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적 소설론의 형성은 1890년대 중반에 이르러 「턴로력당」 등의 서발비평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소설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아울러 효용론적 관점을 중시했던 조선시대의 소설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역사소설의 소설론은 국권과 민권을 회복하기 위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다. 또한 당쟁으로 인한 외세의존을 경계하고, 구국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며 서구의 혁신사상을 수용함으로써 현실 개혁의 준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세째, 전기소설의 소설론에서는 이미 상실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적 민족적 구국영웅을 갈망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위정척사의 주자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현실을 타개하고자 했던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네째, 역사·전기소설의 소설론에서는 기존의 국문소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롭게 소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에 성행하던 한글본 고전소설 뿐만 아니라 신소설에까지 비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혼'을 일깨우고 '국민의 나침반'이 될 소설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국성을 배양하고 민지를 계발하기 위해서 역사적 경험적인 요소를 중시하여 소설을 개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전된다.

다섯째, 인물의 성격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명칭부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명칭부여가 생생한 개성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행동양식이나 줄거리 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본고는 개화기 번역(안) 소설론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전대 혹은 후대와의 관련 여부는 밝혀보지 못했다. 전·후시대와의 관련성 문제는 과제로 남는다.